

사물놀이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경험

김천사*, 김경숙**

본 연구의 목적은 연주자가 사물놀이에서 경험하는 악기와의 대상관계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사물놀이 연주자 5명을 대상으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심층 면담을 시행하고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21개의 의미단위, 7개의 하위 범주, 3개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3개의 대범주는 ‘중간대상의 매체’, ‘내적 욕구 표현 및 인식의 수단’, ‘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로 나타났다. 사물놀이에서 악기는 연주자에게 내적 몰입을 도와주는 대상 경험을 하게 하는 매체가 된다. 또한 연주자는 악기연주를 통해 자신의 내적 욕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해 새롭게 인식한다. 이와 동시에 연주자는 악기 특성과 사물놀이에서의 역할에 따라 악기를 사람처럼 대상화하여 내적 표상을 형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연주에서의 관계를 이해하고 타연주자와 소통한다. 마지막으로 사물놀이에서 악기는 연주자에게 이상적 자기 성격에 따른 대리적 대상의 역할을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사물놀이라는 합주 형태가 연주자의 대상관계 발달을 촉진하며 연주자의 내면화된 표상체계와 상호작용 방식을 외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본 연구는 연주자와 악기 간의 심리내적인 기능적 관계를 밝히고 음악치료에서 사물놀이 악기 활용에 대한 기초를 제시해주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핵심어: 사물놀이, 연주자, 악기, 중간대상, 대상관계

*주저자: 광명장애인종합복지관 음악치료사(KCMT) (angelpublic@naver.com)

**교신저자: 수원대학교 음악대학원 음악융합학과 음악치료상담전공 객원교수(musicalbetween@gmail.com)

I. 서 론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관계 형성에 대한 본능적 욕구를 가지고 일생동안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Fairbairn, 1952). 인간에게 있어 관계란 삶을 영위하는데 필연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인간 행동의 일차적 동기를 대상과 관계 맺는 것에 두고 이론으로 발전시킨 것이 대상관계 이론이다(Klein, 1952). 여기에서 ‘대상관계’란 주체인 한 개인이 성장 초기의 외부 대상인 양육자와 자기 대상 충족의 관계 경험에 대한 결과로써 형성된 특정한 내면적 양식으로 객체인 대상과 맺는 관계를 의미한다(Summers, 2004). 즉 대상관계이론은 생애 초기에 한 개인이 주양육자와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표상을 형성하고 이렇게 내면화된 표상들이 개인의 성격 형성과 이후 대인 관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조명한 것이다(Kim, 2001). 이와 같이 대상관계는 개인이 대인 관계에서 관계를 맺는 기본방식을 결정하는 심리내적 구조로서 기능하며(Horner, 1984) 내부 대상과 외부 대상이 상호적 관계인 동시에 대인관계 경험에 의해 변화되는 역동적인 과정으로 설명된다(Hamilton, 2007).

표상(representation)은 심리내적인 구조로서 한 개인이 자신의 내면세계에 외부 대상을 받아들이고 소유하는 방식으로(Boesky, 1983) 외부 대상을 투사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정신적 상(image)이다. 개인은 대상관계를 통해 자기와 외부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행동에 대한 기대를 가지며, 그와 관련된 감정들과 상황들까지로 표상을 형성한다. 이처럼 표상을 형성한 후에 개인은 내면에 가지고 있는 대상의 상에 반응하고 관계를 맺는다(Rangell, 1985). 따라서 대상관계는 개인간 상호작용이 아닌 개인이 내면화된 양식으로 형성된 자기 표상과 대상 표상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Klein, 1975). 이러한 관계는 연주자와 악기 사이의 밀접한 정서적 관계를 맺고 음악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도 나타난다.

연주자와 악기 간 관계에 관한 주제는 음악심리치료 분야에서 연구되어 왔는데(Kohut & Levarie, 1950), 이는 정신역동적 접근으로 연주 행위 내 연주자의 내적 그리고 관계적 의미에 대한 탐구이다. 또한 주로 임상현장에서 음악의 치료적 사용을 위해 즉흥음악을 사용할 때, 개인이 음악과 관계를 형성하는 현상과 그 패턴에 관한 상호반응 양식이 경험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Bruscia (1987)는 즉흥음악에서 음악적, 비음악적 관계의 역동을 일치/분리(fusion-differentiation), 안정감/변화(stability-change) 그리고 자기중심/타인중심(selfness-otherness)의 세 가지 축으로 설명한다. 특히 자기중심/타인중심의 축을 통해서 한 개인이 그룹 안에서 음악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의 관계 형성의 패턴이나 성격의 대인관계적인 측면이 양상된다(Chong, 2005). Chong(2011)은 즉흥연주에서의 연주자 간의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자기중심/타인대립 성향의 연주자는 본인의 의도와 표현을 중심으로 연주의 방향을 이끌어가고, 자신중심/타인대립 성향의 연주자는 연주되고 있는 음악과 달리 자신의 음악을 제시하면서 변화를 일으킨다. 이와 달리 타인중심/자신대립 성향의 연주자는 타인의 음악에 맞추어 연주하며 타인의

음악을 주로 지지하고, 타인중심/자신분리 성향의 연주자는 타인의 음악에 맞추되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수준이 아니라 어느 정도 독립적으로 자신의 음악을 연주한다. 타인중심/자신중심 성향의 연주자는 타인의 음악과 자신의 음악의 경계선을 의식하면서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연주한다(Chong, 2005). 이와 같이 음악적 행동은 개인의 사회적 행동을 반영하며, 개인의 관계적 특성은 음악적 상호작용 안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음악치료 내에서 악기연주 행위와 소리를 분석하면서 그 관계적 의미를 분석할 수 있다(Rhee, 2006).

연주자의 심리내적 구조와 악기와의 밀접한 관계는 연주자의 성별과 악기의 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다(Fortney, Boyle, & DeCarbo, 1993). 각 악기들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외관 및 음색 등에서 고유한 특징들과 이에 따른 연주 패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연주자의 악기 선택에는 사회적, 심리적, 신체적 요소가 영향을 미치며, 각 악기의 특성에 따른 연주자의 감성이나 다양한 성격적 적합성 등이 논의되기도 하였다(Builione & Lipton, 1983). 또한 연주자가 선택한 악기 특징과 연주 패턴은 개인이 어떻게 악기와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라 할 수 있다(Bruscia, 1987). 연주자는 오랜기간 동안 악기를 연주해오면서 악기와 심리적 관계를 맺으며 내부 대상인 연주자의 정신세계에 내면화된 악기에 대한 이미지나 표상을 제공한 것으로 사료되지만 이에 대한 면밀한 논의는 이루어진 적은 없다.

한국의 주요 전통악기 4개로 구성된 사물놀이는 이러한 내적-외적 대상관계 표상의 역동적 현상을 살펴보는데 매우 의미 있는 장(場)이 될 수 있다. 4개의 악기로 이루어진 사물놀이는 복잡한 악기들의 구성인 오케스트라와 비교하여 악기를 통해 발현되는 개인적 의미와 개인간 의미에 대해 살펴보는 데 유용하다. 사물놀이는 1978년 탄생한 공연예술로 실외에서 이루어지던 농악을 무대화 한 것이다(Kim, 2020). 사물놀이는 국악의 독특한 리듬 구조의 보편성과 즉흥성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전통 음악 장르 중 하나이며(Paek, 2003), 현대에 맞게 새롭게 창작된 대표적인 합주이다(Jeon, 2015). 사물놀이에서 팽과리, 장고, 북, 징의 네 가지 악기는 명확하게 자신의 음악적 역할이 정해져 있다. 또한 장단의 틀 안에서 각자의 역할에 따른 즉흥연주의 음악적 표현 양식을 갖는다(Ju, 2010). 이러한 악기의 결정된 성격과 역할, 그리고 즉흥연주라는 소리표현 양식의 특성은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현상을 이해하고 탐구하기 적합한 장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사물놀이 악기에 대한 역할을 살펴보면 팽과리는 사물놀이에서 지휘자의 역할을 수행하며, 장고는 장단의 리듬을 세밀하게 나누어 음악을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반면 북은 규칙적으로 장단의 강박을 힘 있게 쳐서 중심을 잡아주며, 징은 장단의 대박에서 한 점씩 쳐서 긴 여운으로 다른 악기들을 감싸는 역할을 한다(Yeo, 2014). 이처럼 사물놀이에서 각 악기의 특징과 역할은 명확하게 나뉘어져 있어 역동적으로 소리를 만들어 갈 수 있다(Chong, 2011).

본 연구에서는 사물놀이 연주자가 경험하는 악기 대상관계의 현상적 특징을 탐구하고자 한다. 사물놀이 연주자들은 오랜 기간의 사물놀이 연주 경험이 있으므로 해당 현상에 대한 전문가라

할 수 있다. 즉 사물놀이 연주자들을 통해 연주하는 경험에 있어서 악기 대상관계가 어떻게 표상되고 발현되는지에 대해 탐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사물놀이 연주자에 대한 심층 면담을 통해 연주자가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경험하는 악기 대상관계 현상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따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악기와의 대상관계를 어떻게 경험하는가?

II. 연구 방법

1. 연구 과정

본 연구의 목적은 사물놀이에서 연주자가 경험하는 악기에 대한 대상관계 현상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연주자가 사물놀이에서 경험하는 본질적 의미들을 도출하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란 참여자의 살아있는 경험에 대해 심층 면담을 시행하고 내부자 관점으로 기술하고 분석하여 일정한 현상을 파악하는 연구 방법이다 (Moustakas, 1994). 이를 위해 연구자는 악기 대상관계에 관한 반구조화된 질문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물놀이 연주자 5명에게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연구자는 심층 면담을 통해 참여자의 '있는 그대로'의 경험을 진솔하게 하고 이를 녹취 후 전사했다. 연구자는 최대한 자신의 선입견과 편견을 배제하며 참여자가 진술한 경험의 본질을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는 악기 대상관계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그 본질을 기술하기 위해 의도적 표집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첫째, 사물놀이 전문 연주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전문 연주자로 제한한 이유는 연주자가 숙련된 악기연주가 쌓일 때 사물놀이에서 경험하는 정서와 상황을 의식적으로 더 성찰하고 의미 있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사물놀이 팀에 소속되어 사물놀이 위주의 연습과 공연을 하는 자로서 사물놀이에서 악기 간 관계 속성을 지속적으로 경험하고 안정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자로 선정하였다. 셋째, 자기와 외부와의 내면화된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에 대한 정체성과 대인관계 양상이 공고해지는 성인기 이전에 사물놀이 악기를 시작한 자로 선정하였다. 넷째, 악기와의 관계성을 보기 위하여 사물놀이에서 주 악기 외의 다른 악기들에 대한 연주 경험이 있으며 사물놀이에서 악기연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로 참여자를 선정하였다. 참여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사물놀이 팀에 소속되어 있으며 팀에서 담당 악기가 있는 자
- 2) 사물놀이 네 가지 악기를 모두 다룰 수 있는 자
- 3) 사물놀이 중의 악기를 성인기 전에 시작한 자
- 4) 한국음악을 전공하고 사물놀이 악기연주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Table 1> Participa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표 1〉 참여자의 특성

Participant 대상자	A	B	C	D	E
Gender 성별	Male	Male	Male	Male	Male
Age 연령	32	50	29	32	29
Main instrument 주 악기	Kkwaenggwari 꽹과리	Kkwaenggwari 꽹과리	Jang-go 장고	Buk 북	Jing 징
Age to start playing the instrument, years 연주 시작 나이(세)	11	16	14	13	12
Performance experience, years 연주 경력(년)	23	34	15	19	17
Involvement in performance group 단체 소속	Yes	Yes	Yes	Yes	Yes

3. 자료 수집 및 분석

본 연구의 자료는 사물놀이 연주자 5명 대상으로 2018년 5월 19일-6월 2일까지 진행된 심층 면담을 통해 수집되었다. 연구자는 사물놀이 연주자의 대상관계 경험에 관한 반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을 통한 심층 면담을 평균 40분 이상 진행하였고, 이를 녹취 후 전사하여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심층 면담은 평균 2회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연구자는 자료를 수집하고 전사하는 과정 중에 의미 파악이 모호할 경우 녹취록을 반복하여 듣고 연구 참여자에게 추가 면담을 시행하여 현상의 주요 내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는 사물놀이에서 악기 대상관계에 대한 내적 경험을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현상학적 연구는 귀납적 연구 방법으로 하나의 현상이나 개념에 대해 개인의 깊은 체험이나 본질의 이해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는 것이다(Omery, 1983). 이 연구에서는 Giorgi(2004)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4단계에 걸쳐 분석하였다. 이에 연구자는 1단계에서 참여자들의 진술이 담긴 녹취본을 전사하였고 이렇게 기술한 내용을 전체적인 맥

락을 염두에 두고 반복적으로 읽으며 전체를 인식하였다. 다음으로 2단계에서 기술한 내용을 읽어나가면서 의미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부분을 표시하고 대상관계 경험에 맞춰 의미 단위를 구분하였다. 3단계에서는 의미단위들을 서로 비교하여 중복된 것은 삭제하는 등 재편성하여 중심의미를 도출하였고 가장 적합한 학문적 용어로 전환하였다.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연구자는 앞서 전환된 의미단위 속에 내포된 사물놀이 연주자의 대상관계 경험의 본질을 범주로 구조화하였다.

4. 연구자의 준비도

질적 연구에서 연구자는 자료 분석의 도구로서 연구자의 역량과 자질이 중요하다(Creswell, 2014). 연구자 2인 중 1인은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질적 연구의 동료 패널로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박사 과정 중에는 질적 연구를 수행하여 전문 음악치료 학술지에 게재하였으며 질적 연구 방법론을 이수하였다.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경험의 분석은 심리학의 대표 이론인 대상관계이론에 기초한 현상으로 심층심리에 관한 이론적 지식이 요구된다. 연구자는 석사 과정에서부터 정신 분석의 대상관계 및 자기 심리학 등 심리학 교과목을 수강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음악치료를 진행하고 훈련하면서 인간의 심리와 대인 관계에 관한 통찰력을 발달시켰다. 이러한 준비는 연주자가 악기를 통해 경험하는 역동적인 내부 대상과 외부 대상의 상호작용하는 관계적 속성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학문적인 접근을 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자 1인은 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질적 연구에 관련된 워크숍이나 세미나에 참석하여 질적 연구에 대한 지식과 통찰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학부 전공이 한국음악작곡으로 본 연구에서 사물놀이의 각 악기의 특성과 음악적 역할에 대해 전문적으로 이해하고 전문 공연 연주자들의 삶에 대해 깊이 공감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질적 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전문 질적 연구자와 본 연구의 주제인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경험에 대한 예비 연구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사물놀이 연주자를 대상으로 합주에서 대상관계의 경험이 충분히 도출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론적으로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한편 악기 대상관계에 관한 반구조화 질문지는 전문 질적 연구자의 수정 및 보완을 거쳐서 완성되었다.

<Table 2> Interview Questions

〈표 2〉 면담 질문

Stage 단계	Question 질문
Introduction 도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hich of the four instruments do you mainly play in Samulnori? Do you have any motivation or reasons for playing that instrument? · 사물놀이에서 네 가지 악기 중 주로 어떤 악기를 연주하시나요? 그 악기로 연주하게 된 계기나 이유가 있으신가요?
Main question 중심 질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lease tell me if you are playing a role or representing an appearance, action, or image of yourself that you liked to do while playing that instrument with others in Samulnori. Could you please tell me more? · What kind of music would you like to create in Samulnori? How does the music relate to the way you usually want to be in your relationships with people? Could you please tell me more? · While playing the musical instrument in Samulnori, you also showed a different appearance or role than you normally do. Please tell me how these experiences affect you. · 사물놀이에서 그 악기로 다른 악기들과 연주하면서 평소 하고 싶었던 역할이나 모습, 행동, 자신의 이미지 등을 하고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좀 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요? · 사물놀이에서 어떠한 음악을 만들어내고 싶으세요? 평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바라는 모습과는 어떤가요? 좀 더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어요? · 사물놀이에 그 악기를 연주하면서 평소 자신과 다른 모습이나 역할 등의 보여주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경험들이 자신에게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f you have a difference in your usual appearance (personality/disposition) from that instrument played, please describe it. · If there are any similarities between the person you want to become (personality/disposition) and an instrument, please describe it. · If there is anyone that reminds you through the tone or playing pattern of that instrument, please describe it. · 평소 자신의 모습(성격/성향)이 그 악기랑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성격/성향)이 악기랑 닮은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 그 악기의 음색이나 연주 패턴 등을 통해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Conclusion 마무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n Samulnori, you shared some aspects in yourself that you could not normally but could see through playing an instrument. Please let me know if you get a new perspective from that or anythings that you would like to add. · 사물놀이에서 악기연주를 통해 평소에 볼 수 없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 나누어 보았어요. 새롭게 떠오른 생각이나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5.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본 연구는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사실적 가치(truth value)와 일관성(consistency), 적용성(applicability), 중립성(neutrality)에 대한 평가 기준(Korstjens & Moser, 2018)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면담 자료가 연구 참여자의 진술 내용과 일치하는지 참여자에게 메일로 파일을 송부하여 타당도를 검증받았다. 둘째, 질적 연구자인 지도교수 및 질적 연구 수업을 수강한 음악치료 박사생 4명에게 각 구성요소의 맥락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 검토를 받았다. 셋째, 연구자는 자료가 질적으로 포화되면서도 연구자의 편견과 판단이 분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결과 도출 후 질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질적 연구자 1인에게 하위 범주 내용의 분류 및 명명화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를 받았다.

6. 윤리적 고려사항

본 연구에서는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에 따라 사물놀이 연주자에게 직접 전화 또는 문자를 활용하여 연구의 목적과 절차 그리고 연구에 대한 의의를 설명하고 참여 여부를 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연구자는 연구에 동의한 참여자들에게 연구 참여자로서 자신의 역할과 권리를 이해할 수 있는 문서를 서면이나 e-mail을 통하여 제공하였고 그런 다음 연구 참여 여부를 재확인하였다. 연구자는 선정된 연구 참여자들에게 심층 면담을 실시하기에 앞서 연구 목적과 연구 윤리 및 참여자의 권리를 안내하였으며 연구 참여 지속 여부에 관한 답변을 듣고 참여자의 동의하에 이 모든 과정을 녹취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참여자가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수 있으며 면담 중 응답을 거부하거나 면담을 중단할 수 있고 모든 정보는 익명으로 처리되며 비밀 보장이 될 것임을 고지하였다. 마지막으로 심층 면담은 녹음되며 전사됨을 알리고 연구 종결 후에 자료가 폐기될 것을 설명하였다.

III. 연구 결과

연구에서는 Giorgi의 분석방법에 따라 사물놀이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경험에 대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121개의 의미단위, 7개의 하위 범주, 3개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논문의 본문에는 하위범주와 대범주가 제시되었고(<Table 3>) 의미단위를 포함한 전체 분석 결과는 <Appendix 1>에 제시되었다.

<Table 3> Subcategory and Main Category of the Experience of Musical Instrumental Object Relations of Samulnori Players

〈표 3〉 사물놀이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경험 연구 결과 중 하위범주와 범주명

Subcategory 하위범주	Main category 범주
Object experiences that help internal immersion 내적 몰입을 도와주는 대상경험	Medium for transitional object 중간대상의 매개체
Recognition and expression of inner desire 내적 욕구 인식과 표현	Expression of inner desire and the means of recognition
Awareness of a new personality and identity 개인의 새로운 성격과 정체성 인식	내적 욕구 표현 및 인식의 수단
Connection of musical instrument to people as the object representation 악기-사람 대상 표상 연결	
Understanding of relationships and roles represented by an instrument 악기로 표상된 관계 및 역할 이해	Tools for recognition of others and communication 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
Caring communication through musical instruments 악기를 통한 배려적 소통	
Role experience as the vicarious object 대리적 대상 역할 경험	

1. 중간대상의 매체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연주자로 하여금 점차 신명나게 내적 몰입을 하게 한다. 이때 악기는 최적 몰입의 중간대상이 되어준다. 사물놀이 동안 연주자는 악기를 통해 그룹원과 함께 리듬을 만들고 고조시키면서 신명과 흥만, 희열감의 감정적 절정 경험을 한다. 즉 사물놀이에서 연주자는 다른 악기들과 함께 장단을 연주하면서 완급에 의한 리듬, 템포와 셈여림으로 음악의 흥취를 더해가며 악기를 통해 에너지를 발산하고 신명을 느끼며 내적 몰입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악기는 이때 연주자에게 내적 몰입을 도와주는 중간대상의 매체가 된다.

1) 내적 몰입을 도와주는 대상 경험

연주자는 사물놀이를 연주하는 동안 악기가 감정 몰입의 매체가 되어 신명남, 흥만함, 희열

감을 경험한다고 하였다. 리듬 악기로만 구성된 사물놀이 집단 연주에서 특히 장단이 점점 고조되는 순간 연주자들은 이러한 감정을 동반한 몰입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울리는 사람들끼리 신명을 같이 냈던 게 있어서 나중에 이제 느꼈죠. 그때는 그냥 기분 좋은지 알았는데 나중에 직업으로 삼고 해나가면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그게 신명이었더라고요 (참여자 B)

무대에서 연주를 하다가 안 맞으면 막 쌓아가는 감정이 저 밑에서부터 끓어올라가고 막 가슴에서 두근두근하다가 머리로 올라와서 여기서 탁 터지는 느낌이 들어야 하는데 그게 이제 신명이 나는 건데 막 여기서 끓어오르다가 저기서 삐끗 삐끗하면 이제 이제 한번에 확 무너지죠 (참여자 B)

2. 내적 욕구의 표현 및 인식의 수단

연주자가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경험하는 ‘내적 욕구 인식과 표현’, ‘개인의 새로운 성격과 정체성 인식’은 내적 욕구의 표현 및 인식의 수단으로 범주화되었다. 사물놀이에서 악기연주는 연주자에게 내적 욕구를 발현하도록 돕는다. 악기를 통해 연주자는 자신의 음악적 역할에 대한 욕구를 인식하고 음악에 자신의 욕구를 투영하였다.

1) 내적 욕구 인식과 표현

사물놀이의 네 가지 악기는 금속으로 이루어진 팽과리와 징 그리고 가죽으로 만들어진 장고와 북이 저마다 가지는 음색과 고음 대 저음, 여운의 길이 등으로 합주 내에서 서로 다른 음악적 역할을 한다. 이러한 악기의 성격과 합주 내의 음악적 역할에 따라 연주자는 내적 욕구를 형성하고 자기를 악기로 표현되는 것을 관객들과 함께 나누길 원하였다.

나, 혹은 악기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울림을 준다는 것은 참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소리의 전달, 즐거움의 전달, 신명과 흥의 전달로 이어져 함께 동화되어 같이 즐기고 흥겨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람으로서 말로 누군가에게 울림을 주는 것보다는 북으로 하는 것이 더 전달력 있다고 생각해요 (참여자 D)

사실, 팽과리를 하면서 대장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사실 대장 역할을 하는 거고, 대장을 하는 건데, 사실 그게 정말 좋았어요. 어른들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도 그렇고. 상쇠라고 부르잖아요. 상쇠 대우해 주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저랑 성향이... 제가 어릴 때부터 리더십이 좀 좋았는데, 추진력이 좋고, 이런 것처럼 (참여자 A)

징 소리처럼 무겁고 오래가는,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무겁고, 징 소리가 들으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도 제가 그런 모습으로 비치고 싶고 (참여자 E)

그냥 연주도 우리가 일반 우리가 다른 생활하는 것처럼 사람들끼리 대화를 하거나 운동을 하거나 술을 먹거나 이런 모습 있잖아요. 그런 인간적인 모습들이 사물놀이에 그대로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참여자 E)

2) 개인의 새로운 성격과 정체성 인식

연주자는 사물놀이 합주에서 자신이 맡은 악기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자신의 새로운 성격을 알아차리기도 한다. 연주자는 악기의 특성에 따른 성격과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역할을 합주 내에서 수행하면서 평소 자신의 모습과 상반되는 악기의 성격을 닮아가는 새로운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다고 하였다.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물놀이를 하고, 이후부터 표현하는 게 좀 많이 생겼어요. 팽과리는 어쨌든 앞에서 또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휘자가 뭔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팽과리가 또 이제 좀 음악적인 부분에서 치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어쨌든 뒤편은 느낌이 많이 생기죠 (참여자 A)

팽과리가 아 제가 예민한 사람인 줄 몰랐어요. 되게 털털하고. 털렁거리고.. 되게 밝고 그런 줄만 알았는데 팽과리를 연주하면서 정확하게 느낀 건 굉장히 또 예민한 성격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고집스러운 것도 있고요 (참여자 A)

사물놀이에서 북의 역할과 최근에 바뀐 나의 성격 변화 중 가장 악기와 성격의 비슷한 점은 이 부분이라고 생각되며, 악기의 성격에 따라 사람의 성격이 변할 수도 있는지를 새삼 느꼈어요 (참여자 D)

3. 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악기-사람 대상 표상 연결’, ‘악기로 표상된 관계 내 역할 인식’, ‘개인-타인 간 악기를 통한 교류’, ‘대리적 대상 역할 경험’으로 악기 간에 관계를 맺음으로써 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로서 사용된다. 이는 연주에서 악기를 통해 실제 개인간 관계에서 경험하는 것과 유사하게 악기를 통해 대리적 역할을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악기-사람 대상 표상 연결

사물놀이에서 팽과리는 우두머리로서 리더 역할, 양손을 사용할 수 있는 독주악기인 장고는 팽과리 다음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북과 징은 각각의 기본박과 고동박을 강하게 연주함으로써 주도적인 악기들이 연주할 수 있는 음악적 기반을 마련해 준다. 이러한 음악적 역할에 따라 연주자는 각 악기에 대한 역할 표상을 보고하였다.

제가 뭐 제가 하고 싶은 것을 열심히 멋대로 하지만 계속하고자 하는 것을 계속 쪽 쪽쪽 밀고 나가지만 근데 부모님들은 그거에 대해서 늘 바른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하고 그리고 든든히 뒤에서 백이 되어주시고.. 뭐 이런 것 같은 이런 관계를 생각하는 것 같아요 (참여자 A)

그 어렸을 때 아버지가 북으로 기동을 세워주고 어머니가 징으로 감싸주는 그게 아직도 저는 좀 잘 많이 남아 있거든요. 형이 리더십 있게 저를 끌여주고. 뭐 이런 저는 이제 제멋대로 치고 있고 그래서 아직도 그런 게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 제 성격이 좀 워낙 활발하고 이렇게 까부는 성격이라 징이랑 북은 그냥 그런 식으로 밖에 생각이 안 들고 기동을 잡아줘야 되고, 감싸줘야 되고.. 저는 더 활발하게 놀고 싶은 성격이라 (참여자 C)

북이나 징 같은 애들이 북이나 징 같은 애들은 제 얘기를 좀 들어주는 친구들.. 뭔가 들어주고 얼마나 아빠 선생님. 괜찮아 넌 잘 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저를 약간 들어주고 저를 약간 도와주는 이런 느낌의 사람이라면.. 장고는 저랑 약간 의견 충돌을 하며 대화를 이끌어가는 약간 그런 사람이지만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여자 A)

2) 악기로 표상된 관계 및 역할 이해

연주자는 북과 징에 대해서 중심이 있고 지지할 수 있는 표상과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팽과리나 장고에 대해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표상을 형성한다. 연주자는 이렇게 표상된 악기들에 따라 사물놀이 합주에서 자신의 악기 외에도 각 악기의 역할을 인식하며 연주하였다.

팽과리 치는 게 재미있고 그런데 이제 그 북이랑 징으로 봤을 때는 조금 그런 게 조금 있죠. 이 사람들이 꾸준히 받쳐주지 못하면 장고하고 북이 흔들리니까 재미있기가 힘들죠. 북하고 장고가 든든하게 받쳐줘야 장고하고 팽과리가 놀 수가 있죠 (참여자 A)

장고는 이제 여기도 갔다 저기도 갔다 하는데 북이 살짝 흔들리면 연주자가? 그럼 저도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기준이 그거를 이제 북 연주자를 잘 만나면? 정말 편안

한 연주가 더 잘 맞는 연주가 나오는 것 같고. 그게 북이 흔들리면 저도 기둥이 흔들리니까. 뭘 왔다 갔다 하기보다는 같이 맞추고 그냥 안전하게 가는 느낌? (참여자 C)

북을 연주하면서 내가 중심점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 자리는 내가 지키고 있을 테니 맘껏 놓고 돌아오고 싶을 때 돌아와서 같이 다른 곳으로 가자는 느낌으로 (참여자 D)

다른 악기들은 여러 가지 리듬으로 연주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걸 징이 전체적으로 한 번 확 감아주면은 음악이 탁 틀릴 때,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참여자 E)

3) 악기를 통한 배려적 소통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자신의 주도적 혹은 지지적인 음악 역할에 따라 각 악기는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서로 이해하고 소통을 한다. 즉 연주자는 주어진 자신의 음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만족감과 존재감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다른 연주자와의 합주에서 자신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지 않을 때 심리적 불편감도 경험하였다. 특별히 연주자들은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각 악기의 역할을 이해하고 악기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역할을 고려하고 배려하며 연주하였다.

제가 그들의 밑에 있어야지 그게 더 조화로운 연주가 되지 제가 그 위에 있으면 연주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리더라는 게 누구를 대장의 역할만을 리더라고 말하지 않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잘 이루게 만드는 것이 리더인 것 같아요. 좋은 음악을 만들어 내는 것이, 양보하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고, 베이스가 되어 주는 것도 리더의 역할이고 앞장만 선다고 리더는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참여자 A)

4가지 악기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 표현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는 팽과리는 소리가 작게 이렇게 소리를 죽여주고, 흔히 말할 때는 깔아준다 그러는데, 팽과리는 조용조용하게 가고 있다가 또 서로 필요한 부분에서는 또 변화가 되는 부분이나 아니면 또 서로 주고받는 대목이거나 이럴 때는 또 얘기가 크죠. 그럴 때는 표현이 또 당연히 있어야 되고 (참여자 B)

이 사람들이 나를 더 믿고 편하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떻게 되고 싶다 이런 감정보다 옆에 있는 사람들이 더 편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날 믿어줬으면 좋겠다. 나를 믿고 더 달려가도 되고, 천천히 와도 되는데, 다 맞춰줄 수 있다. 이런 느낌? 서로 잘 어울려지면 좋겠다. 이런 감정? 조화에 대해서 가장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여자 D)

4) 대리적 대상 역할 경험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대리적 역할을 경험한다.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대리적 음악적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주자는 평소에 사용하지 않는 성격의 부분 또는 이상적인 자기 성격에 따른 역할을 사물놀이 합주 안에서 실제로 역할을 맡아서 해보는 대리적 역할을 경험하였다.

북은 한 가락을 반복하는 연주가 주를 이뤄요. 이 같은 가락을 반복하고 다른 악기들이 자유롭게 연주하는 것과는 다르게 내 성격은 즉흥적이고 시시때때로 변하는 편이에요. 북은 우직하고 굵직굵직하다면 난 가볍고 변덕스럽기도 해요. 이런 부분들은 정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참여자 D)

저는, 성격이 원래 되게 소심한 성격이고 뭐, 남들 뒤에서 받쳐주는 역할이 못 되는데, 징이라는 악기는 원래 연주를 하면서 전체적인 연주 형태 그런 거를 감싸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남들을 챙겨주거나 이렇게 하지를 않는데 다른 모습인 거 같아요 (참여자 E)

(원래 내성적인 성격이 좀 많이 있지만) 팽과리는 어쨌든 앞에서 또 이끌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지휘자가 뭔가 아무 얘기도 안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리고 팽과리가 또 이제 좀 음악적인 부분에서 치고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참여자 A)

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연주자는 자신의 악기와 다른 연주자의 악기에서 각 악기의 리듬과 음색, 역할 등에 따라 대상 표상을 인식하고 관계를 맺고 있었다. 즉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각 악기의 성격과 음악적 역할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에 따라 각 악기에 대상 표상을 형성하고 악기와 상호작용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연주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팽과리나 장고에 대해 부모님의 지원 위에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는 청소년기 아들이나 형 등으로 표상을 형성하고 있다. 또한 지지적인 역할을 하는 북과 징에 대해서는 중심이 있고 수용적인 아버지, 어머니 등의 부모님으로 표상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러한 사물놀이 연주에서 연주자는 각각의 악기가 갖는 기본적인 역할을 바탕으로 음악을 만들어간다.

사물놀이 악기는 연주자로 하여금 성격과 역할 표상을 가지게 하여 음악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관계한다. 이에 각각의 악기 특성과 성격이 실현된 결과는 음악적 조화로 표현된다. 결과적으로, 사물놀이 악기는 연주자에게 내적 몰입으로 이끄는 중간대상이 되어준다. 중간대상과 관계하는 내적 몰입의 경험은 연주자로 하여금 만족과 신명을 이끈다. 또한 악기와

의 관계에서 연주자는 자신의 내적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한다. 이는 악기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음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연주자의 노력이다. 이러한 악기와의 관계성은 악기의 성격에 대한 이해에 그치지 않고, 자신에 대한 이해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주자들은 사물놀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에 따라 악기에 대해 표상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조화로운 음악을 만들어내기 위하여 자기 악기의 특성과 성격 그리고 역할 표상을 바탕으로 서로를 배려하며 연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사물놀이에서 연주자가 경험하는 대상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한 질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섯 명의 사물놀이 연주자를 대상으로 악기 대상관계에 관한 심층 면접을 실시한 결과, 121개의 의미단위, 7개의 하위 범주, 3개의 대범주가 도출되었다. 3개의 대범주는 ‘중간대상의 매체’, ‘내적 욕구 표현 및 인식의 수단’, ‘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로 나타났다. 연구 결과에 따른 사물놀이 연주자의 대상관계 경험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물놀이 연주자의 대상관계는 연주자와 자신의 악기, 그리고 악기 간 및 연주자 간 교류에서 다면적으로 발생한다.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연주자에게 악기는 신명을 경험하게 하는 감정 몰입을 위한 중간대상의 매체가 된다. 또한 연주자는 악기를 통해 자신의 내적 욕구를 인식하고 표현하며 자신의 성격에 대해 알아차림의 기회를 가진다. 이는 개인 내적 성격의 대상관계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개인 간 대상관계 현상으로 연주자는 사물놀이 합주에서 악기에 따른 특성과 역할에 따라 악기의 대상 표상을 인식하고 악기를 소통의 도구로 활용한다. 더 나아가 악기는 연주자에게 대리적 대상 역할의 경험을 제공한다. 이처럼 사물놀이에서 연주자는 악기와 개인내적 관계와 개인 간 관계를 맺으며 이 두 관계는 서로 분리되지 않고 상호성을 가지며 동시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연주자는 사물놀이에서 악기를 연주하는 동안 대리적 역할 경험을 한다. 사물놀이에서 이 현상은 연주자에게 악기연주가 단순한 소리의 교류 이상의 관계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연주자는 평소에 보기 어려운 자신의 모습이나 집단 내 이상적인 자기 이미지나 역할을 실제로 사물놀이 연주를 통해 실현하고 이를 통해 미개발된 자신의 성격을 발견하게 된다. 연주자에게 악기는 각 악기의 고유한 음악적 성격과 역할 대상 표상이 되어주고, 집단적-음악적 관계를 표상하거나 교류하게 해주며 대리적 역할의 수단이 되어준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사물놀이에서 악기 대상관계 현상이 음악적 교류를 넘어서 개인 성격 및 성장이 포함되는 음악적 현상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음악치료에서 연주 활동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연주 내 발생하는 심리적 의미를 밝히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 사물놀이는 악기의 역할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합주 활동이다. 사물놀이 각각의 악기들에 표상된 소리의 역할을 연주자들이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일반적 연주 내 발생하는 심리적 의미를 해석하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사물놀이란 합주 형태가 연주자의 대상관계 다면적 측면을 촉진하며 연주자의 내면화된 표상체계와 상호작용 방식을 표면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본 연구는 연주자와 악기 간의 심리내적인 기능적 관계를 밝히고 음악치료에서 사물놀이 악기 활용에 대한 기초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후속 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연주자들은 사물놀이에서 주어진 역할에 따라 악기에 대해 표상을 형성하고 관계를 맺으며 악기의 대상화 경험을 하고 있었다. 더 나아가 대리적 역할 경험의 도구로 평소 자신의 모습과 다른 이상적인 모습을 사물놀이에서 음악적 존재로서 실현하는 경험임을 알 수 있었다. 전문연주자들의 경험의 보고는 연주 행위에서 나타나는 정신세계의 내면화된 관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연주 행위에서 연주자는 자신의 악기를 어떻게 대상화하여 성격을 부여하고, 소리의 역할을 실행하는지 또한 합주 동안 다른 연주자와 음악적 역할을 어떻게 표상하고 연주를 이어가는지에 대해 추후 연구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추후 연구에서는 연주 동안 경험되는 대상관계 현상의 과정과 맥락을 면밀히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대상관계 현상의 과정에서 악기가 어떻게 의미 있는 대상 관계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맥락을 심층적으로 분석할 것도 제안한다.

사물놀이는 악기의 역할이 이미 내포되어 있는 합주 활동으로 각각의 악기들에 표상된 소리의 역할을 연주자들이 어떻게 대상화하는지에 대해 분석하는 것은 연주 내 발생하는 심리적 의미를 해석하는데 도움을 준다. 이는 사물놀이란 합주 형태에서 악기를 통한 연주자의 내면화된 표상체계와 상호작용 방식이 표면화된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음악치료에서 사물놀이를 활용하는데 있어 심리-관계적 이해의 기초를 제시했다는 데 의의를 가지는 반면 사물놀이의 고유성에 제한된다. 이에 후속연구에서는 사물놀이 이외의 서양악기로 확장된 합주의 과정에서 연주자와 악기 간의 심리내적인 역동적 관계에 대한 탐구로 확장되기를 기대한다.

References

- Boesky, D. (1983). The problem of mental representation in self and object theory.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52(4), 564-583.
- Bruscia, K. E. (1987). *Improvisational models of music therapy*. Springfield, IL: Charles C Thomas Publishers.

- Builione, R. S., & Lipton, J. P. (1983). Stereotypes and personality of classical musicians. *Psychomusicology: A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Cognition*, 3(1), 36-43.
- Chong, H. J. (2005). *Music therapy: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Seoul: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정현주 (2005). **음악치료학의 이해와 적용**.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 Chong, H. J. (2011). *Influence of music on human behavior*. Seoul: Hakjisa. [정현주 (2011). **인간행동과 음악**. 서울: 학지사.]
- Creswell, J. W. (2014).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Fairbairn, W. R. D. (1952). *Psychoanalytic studies of the personality*. London: Routledge.
- Fortney, P. M., Boyle, J. D., & DeCarbo, N. J. (1993). A study of middle school band students' instrument choices. *Journal of Research in Music Education*, 41(1), 28-39.
- Giorgi, A. (2004). *Phenomenology and psychological research* (K. L. Shin, Y. J. Jang, I. S. Park, M. Y. Kim, & S. E. Jung, Trans.). Seoul: Hyunmoonsa. (Original work published 1985) [Giorgi, A. (2004). **현상학과 심리학 연구** (신경림, 장연집, 박인숙, 정승은 역). 서울: 현문사. (원저 1985년 출판)]
- Hamilton, N. G. (2007). *An introduction to object relations* (J. S. Kim, C. D. Kim, J. Y. Lee, Trans.). Seoul: Hakjisa. (Original work published 1997). [Hamilton, N. G. (2007). **대상관계이론과 실제** (김진숙, 김창대, 이지연 역). 서울: 학지사. (원저 1997년 출판)]
- Horner, A. J. (1984). *Object relations and the developing ego in therapy*. New York: Jason Aronson.
- Jeon, J. Y. (2015). Samulnori as a symbol of Korean society. *The Korean Journal of Arts Studies*, 12, 117-136. [전지영 (2015). 한국사회 상징으로서 사물놀이. **한국예술연구**, 12, 117-136.]
- Ju, J. Y. (2010). *Achievements of cultural-commercial aspects of Samulnori through an analysis of its history*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주재연 (2010). **사물놀이의 역사적 전개와 문화산업적 성과**.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Kim, J. S. (2001). A review of object relations theory and its application in counseling.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2), 327-343. [김진숙 (2001). 대상관계이론의 상담적 적용에 대한 고찰. **상담학연구**, 2(2), 327-343.]
- Kim, S. D. (2020). *A musical analysis of Kim Duk-Soo's Samdo Seol Jang-gu melody: Centered on the "Samdo Seol Jang-gu melody" performance from the 2nd Korean traditional music festival in 1982*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Seoul. [김성대 (2020). **김덕수 사물놀이 삼도 설장고 가락의 음악적 분석: 제2회 <대한민국 국악제>(1982) 삼도 설장고 가락을 중심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 석사학위논문.]
- Klein, M. (1952). *Some theoretical conclusions regarding the emotional life of the infant*. New

- York: Delacorte Press.
- Klein, M. (1975). *The psychoanalysis of children*. New York: Delacorte Press.
- Kohut, H., & Levarie, S. (1950). On the enjoyment of listening to music. *The Psychoanalytic Quarterly*, 19(1), 64-87.
- Korstjens, I., & Moser, A. (2018). Series: Practical guidance to qualitative research. Part 4: Trustworthiness and publishing. *European Journal of General Practice*, 24(1), 120-124.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2), 49-64.
- Paek, D. U. (2003). *Langue and parole of traditional music*. Seoul: Tongnamu. [백대웅 (2003). **전통음악의 랑그와 빠롤**. 서울: 통나무.]
- Rangell, L. (1985). The object in psychoanalytic theory. *Journal of the American Psychoanalytic Association*, 33(2), 301-334.
- Rhee, H. J. (2006). Role of music in therapist-client relationship. *Journal of Music and Human Behavior*, 3(2), 29-44. [이혜주 (2006). 치료사-내담자 관계에서 음악의 역할에 대한 사례 연구. **인간행동과 음악연구**, 3(2), 29-44.]
- Summers, F. (2004). *Object relations theories and psychopathology: A comprehensive text* (J. H. Lee, Trans.). Seoul: Korean Institute for Contemporary Psychoanalysis. (Original work published 1994) [Summers, F. (2004). 대상관계 이론과 정신병리학 (이재훈 역).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원저 1994 출판)]
- Yeo, S. B. (2014). *A textlinguistic analysis on Samulnori*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University, Seoul. [여상범 (2014). **사물놀이의 텍스트언어학적 분석**.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게재신청일: 2021. 10. 21.
- 수정투고일: 2021. 11. 12.
- 게재확정일: 2021. 11. 25.

Samulnori Musicians' Experiences of Object Relations With Their Instruments

Kim, Cheonsa*, Kim, Kyoungsook**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the phenomenon of object relations with musical instruments as experienced by professional Samulnori musicians. The researcher conducted in-depth individual interviews with five Samulnori players who also completed questionnaires with open-ended questions.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Giorgi(2004)'s phenomenological methodology. The results offered 121 semantic units, seven subcategories, and three main categories. The three main categories were transitional object, object of expression and recognition of internal desires, and object for recognition of others and communic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nsemble format of Samulnori promotes the development of the musician's object relationship and can externalize the player's internalized representational system and interaction method.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reveals the endopsychic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a musician and their instrument and provides the basis for the use of Samulnori instruments in music therapy.

Keywords: Samulnori, musicians, musical instrument, transitional object, object relations

*First author: Music Therapist, Gwang Myeong Welfare Center for the Disabled(KCMT) (angelpublic@naver.com)

**Corresponding author: Visiting Professor, Department of Music Therapy, Graduate School of Music, University of Suwon (musicalbetween@gmail.com)

〈Appendix 1〉 사물놀이 연주자의 악기 대상관계 경험에 대한 연구 결과

내용	하위범주	대범주
· 합주를 하면서 신명나게 몰입함 (장고:B6)	내적 몰입을 도와주는 대상경험	중간대상의 매체
· 악기연주를 통하여 정서 등을 전달하는 것에 대한 만족 (북:C1) · 자신이 느끼는 것을 표현해내고 노력함 (쟁과리:A22) · 자신의 모습이 드러날 수 있는 음악을 표현하고 싶음 (징:D37)	내적 욕구 인식과 표현	
· 합주에서 평소 모습과 상반되는 내 악기의 성격과 역할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인식 (쟁과리:A60) · 악기연주를 통해 예전과 달리 표현력이 많아지고 밝아졌음을 인식 (쟁과리:A5) · 반대적인 악기연주 모습을 통해 자신을 확장시킴 (쟁과리:A47) · 악기연주를 통해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됨 (쟁과리:A25) · 합주에서 악기연주에 따라 성격이 새롭게 바뀔 수 있음을 인식 (징:D21)	개인의 새로운 성격과 정체성 인식	내적 욕구 표현 및 인식의 수단
· 북과 징의 지지적인 연주가 부모님처럼 느껴짐 (쟁과리:A58) · 쟁과리는 청소년기의 철없는 자식처럼 큰 소리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악기임 (쟁과리:A89) · 장고는 의견 충돌도 하는 굉장히 친한 친구 같고 북과 징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 같음 (쟁과리:A79) · 쟁과리와 장고의 주도적인 연주가 자식처럼 느껴짐 (장고:B54a) · 북은 반복적인 리듬으로 기동역할의 아버지 같고 징은 긴 울림으로 감싸주는 어머니 같음 (장고:B36) · 쟁과리는 리더십으로 자신을 이끌어주는 것 같고, 장고는 그 안에서 활발하게 노는 동생 같음 (장고:B43) · 징은 보이지 않게 챙겨주고 사랑해주는 부모님 같음 (징:D13)	악기-사람 대상 표상 연결	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
· 사물놀이에서 다른 악기들과 연주할 때 자신에게 주어진 리더 역할을 충분히 책임을 짐(쟁과리:A86) · 리더를 지지적 역할의 연주자들이 따라오지 않을 때 크게 치게 됨 (쟁과리:A32) · 리드하는 연주자끼리(쟁과리와 장고) 서로 자기가 더 잘하는 것을 경쟁할 때 지지적 역할의 악기는 맞춰줌 (쟁과리:A87) · 양손으로 충분히 리듬분할을 하여 장단을 충분히 채워줄 때 다른 악기들이 편하게 악기연주를 함 (장고:B21) · 북이 일정 박을 흔들리지 않고 지지해줄 때 자유롭게 연주하지만 흔들리면 안전하게 연주하게 됨 (장고:B73)	악기로 표상된 관계 및 역할 이해	

〈Appendix 1〉 계속

내용	하위범주	대범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더인 썰과리가 전체적으로 음악을 이끌어 가기에 힘이 빠질 때 리더악기인 장고가 대신 음악을 끌고 감 (북:D29) · 주도적인 역할의 악기가 서로 계속 자신들의 이야기를 할 때 북이 두 악기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해줌 (북:D36) · (각기 악기 소리는) 공동의 목표를 두고 각자 맡은 역할 충실히 수행함 (북:C6) · 다른 악기들의 리듬이 끊기거나 틀릴 때 긴 여운으로 감싸줌 (장:D11) 	<p>악기로 표상된 관계 및 역할 이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물놀이는 서로 돕고 더불어 가면서 음악을 만들어냄 (썰과리:A38) · 서로 간의 존중을 하면서 연주 함 (썰과리:A38) · 서로 양보와 배려로 서로 균형 있게 돋보일 수 있음 (장고:B57) · 서로가 낼 수 없는 소리를 다른 악기들로 채워줌 (북:C22) · 서로의 연주자와 악기 특성이나 이해하고 알아감 (북:C40) · 내 악기 소리는 다른 악기가 할 수 없는 음악적 역할을 해내는 것 (북:C20) · (합주에서도) 자기 악기만의 고유한 음색을 갖고 유지해야 함 (북:C21) · 자신의 악기가 빠지면 허전한 음악이 되어 충실히 연주 함 (장:D27) 	<p>악기를 통한 배려적 소통</p>	<p>타인 인식과 소통의 도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동적인 편인데 합주 내에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이끄는 역할 실현 (썰과리:A43) · 타인을 의식하는 편인데 합주에서 소신껏 눈치 보지 않고 실행 (썰과리:A64) · 소심한 성격인데 합주에서 주도적인 역할 실현 (썰과리:A7) · 장난끼가 많고 계획적이지 않는 일상을 보내는데 합주에서 진지하고 정확하게 연주하려고 하는 모습 발현 (장고:B7) · 우유부단한 성격인데 합주에서 보이지 않는 리더 역할 실현 (장고:B23) · 평소 즉흥적이고 변덕스러운데 합주에서 우직하게 중심을 지키는 역할 실현 (북:C2) ·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지지적 역할을 충실히 실현 (북:C38) · 타인을 챙겨주지 못하는데 합주에서 타인을 감싸주는 역할 실현 (장:D4) · 평소 모습과 상반되게 뒤에서 받쳐주고 지켜주는 역할 실현 (장:D51) 	<p>대리적 대상 역할 경험</p>	